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지속성에 대해 다층적 질문을 던지는 여성 작가 다섯명의 그룹전. 생명 활동의 최소 단위인 ‘세포’를 메타포로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기술과 감정 간의 끊임없는 변화와 투쟁을 탐구했다.

뉴욕, 런던, 파리, 서울을 기반으로 각각의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전시를 통해 드러냈다. 아나스타샤 코마는 회화와 폴리머 조각을 결합해 과학적 발견과 신화적 상징을 교차시켜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에피 완이 리는 보이지 않는 지각을 형상화하고 내면적 혼란의 감각을 표면화한다. 페르난다 갈바오는 공상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미래 식물 생태계를 구현하며, 오묘초는 SF적 서사를 기반으로 가상의 세계를 창조해 존재를 물질화된 형상으로 표현한다. 도현희는 한지를 매개로 감각과 기억의 축적과 해체를 시각화한다. 활동 무대와 표현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서사는 결국 변화하는 환경 속 인간 존재의 긴장, 투쟁, 회복력에 관한 깊은 사유를 제시했다.